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윤지수* · 현병환**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양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용된 연구모델과 연구가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독립변수로 기업가정신, 매개변수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종속변수로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자료수집은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수강생, 창업동아리 활동 학생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방식으로 총 220명을 조사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은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살펴보면 모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으로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 제고를 위해서는 창업교육 단계에서 기업가정신 교육과 진로교육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융합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을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I. 서 론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창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창업분 확산(중소기업청, 2015년) 대책,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등의 대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시책 및 창업지원제도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 등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먼저, 기업가정신은 혁신, 경쟁우위, 수익, 성장 등 성과를 제고하는데 핵심요인으로 연구하고 있다(Miller, 1983; Zahra & Covin, 1996; Baron & Shane, 2005). 선행연구의 주제를 보면, 기업가 개인특성, 벤처기업의 조직특성, 기업가의 인적자본, 사회적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등 다양한 기업가정신 연구 분야가 형성되어왔다(김영환·양태용, 2013; 주기중·박병화, 2015). 최근 들어 창업자 개인특성, 환경적 특성 등과 창업의도에 관한 영향 요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강재학, 2015; 김선왕 외, 201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이론과 진로발달 이론을 접목한 개념으로 개인차원에서 진로와 관련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행위를 잘 수행하게 되며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구체적인 진로와 관련된 체험 활동을 의미하는데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행위적인 노력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의 차

원을 진로준비행동이라 한다(김수리, 20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배성아·성소연, 2019). 이를 적용할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창업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이 창업의도, 창업효능감 등 창업태도 및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창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 향상이 중요하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취업이나 창업을 결정하는 사전단계인 진로에 대한 명확한 자기확신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주요 변수로 다룬 과정을 규명하는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고 기업가정신 또는 창업과 관련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다룬 연구들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향상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업가정신

Baron & Shane(2005)은 기업가정신을 기업이 새로운 유무형의 무엇인가를 창출하기 위해 탐색, 실행하는 것, Gartner & Baker(2010)는 개인이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과정(Czop & Leszczynska, 2011)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개인차원의 행동 또는 특성보다 조직내부의 구성원이나 조직 하위부서, 조직수준 경영활동, 성과 등을 포괄하는 접근법이 있다(Zahara, 1991; Barringer et al., 1999).

다른 관점으로는 기업가정신을 포괄적 의미로 벤처창업과 포착과정이며 제도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Sexton & Bowman, 1985). 즉, 기업가정신은 상호작용이고 기존 조직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연구는 Stevenson(1983)과 Timmons(1994)가 제안한 것으로, Stevenson(1983)은 현재 보유하고 있고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회를 추구하는 것, Timmons(1994)는 종합적 사고 및 리더십에 기반한 사고, 추론, 행동방식으로 정의하고 기업가정신의 의미에는 접근방법, 사고방식, 구체적 행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기업가정신과 진로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청년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함의적 질적연구(CQR)에서 우연경험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새로운 경력을 선택하고 성공과정에 대한 우연경험을 체험하고 경력 전환과정에서 개인역량과 주도적인 준비와 실행력을 통해 주도성, 적극성, 선택만족도, 도전정신이 높게 나타났다(임윤서, 2016). 김진수(2016), 노현철과 김경재(2017)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 이후 진로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2016)와 백민정(2017)의 연구에서도 기업가정신이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백민정 외(2017)의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안태욱과 박재환(2018)의 창업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기업가정신 향상이 진로준비행동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규명하여 본 연구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박재훈과 김성환(2017)의 연구에서는 진로불확실성과 진로교육이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이 있어 기존 연구관계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도출하는 한편 양자 관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설 1>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기업가정신(혁신성·위험감수성·진취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혁신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위험감수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진취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을 확장한 연구로 인지적 관점에서 행동의 변화는 행위자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일어나며,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데 유발하는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창업의도와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되고,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열망, 목표, 결정수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Zaho et al., 2005).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기업가정신은 창업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며 특정행동으로 인해 긍정적 이익이 생길 때 강화되며, 부정적 결과가 생기면 행동은 감소

하게 된다(Howorth et al., 2012).

강제학(2016) 및 강제학과 양동우(2016)는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관계 연구에서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김성욱(2016) 등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밖에 윤지수와 현병환(2017)의 연구에서도 기업가정신의 창업효능감과 유의미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따라서 <가설 2>는 다음과 같다.

가설 2: 기업가정신(혁신성·위험감수성·진취성)은 창업효능감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혁신성은 창업효능감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위험감수성은 창업효능감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진취성은 창업효능감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창업의도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는 Bird(1988)에서부터 비롯되었다(이현숙·백민정, 2012). Bird(1988)는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기업에 가치를 부여하는 의도로 정의하였고, Hmieleski와 Corbett(2006)은 고성장사업을 시작하는 의도, Crant(1996)은 미래에 기업가로 진로를 변경할 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창업의도는 창업행위의 전조로 여겨지고 있으며 창업가의 의도는 신설기업의 초기 전략적 모형판(initial strategic template)을 형성하게 된다(Bird, 1988).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김성우(2017)는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고 김정곤(2017)은 기업

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창업공모전 참여동기의 매개효과와 정부 창업지원 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상호관계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규명하였다. 박지유와 양해술(2014)은 성취성향, 혁신성향, 위험감수성향, 창의성향의 개인특성에 따라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경석과 하규수(2014)는 창업동기와 창업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정용희와 하규수(2012)는 개인특성으로 위험감수성 및 성취욕구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최근 연구된 김태경(2019)의 연구에서도 창업 동아리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와 유의미성을 입증하였고 권명규와 양해술(2016)의 융복합 산업분야 인력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 관계를 규명하는 등 선행연구들에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선행요인임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가설 3>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기업가정신(혁신성·위험감수성·진취성)은 창업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혁신성은 창업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위험감수성은 창업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진취성은 창업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거나 선택한 목표에 대한 직업적인 과제를 수행하며, 직업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기평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으며, 자

신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Bandura, 1997). Tayl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과 관련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의 정도로 정의하고 측정하는 기법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를 제안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로는 Betz et al.,(1996)이 제시하였는데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의 5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평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한다. 정보수집은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목표설정은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를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하고, 진로계획은 진학, 취업, 창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문제해결은 진로상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가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일컫는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를 보면 Tang et al.,(1999)은 아시아계 미국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을 조사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배경, 가족 참여정도는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화와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관계를,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에 간접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혜영(2017)은 기업가정신 교육 전 진로태도 성숙도와 교육 후 창업의지 관계에서 교육 참여도의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서 기업가정신 교육의 참여도와 진로태도 성숙도가 교육 후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정경희와 성장수(2016)는 창업교육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경력준비행동, 경력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종속변수들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진로결정 및 기업가적 경력의도 제고에 유의미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김수리(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진로발달에 주는 영향 관계 분석에서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실(2007)의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재춘과 김성환(2017)은 진로불확실성과 진로교육, 자기결정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정경희와 성장수(2017)는 창업교육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경력준비행동 및 경력의도 관계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가설 4>와 <가설 5>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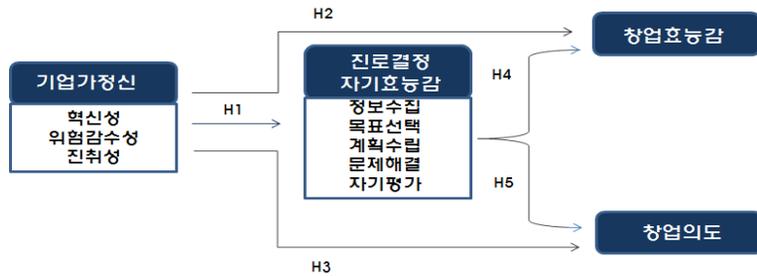
가설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간에 정(+)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정(+)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연구의 모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기업가정신은 Covin과 Slevin(1998)이 개발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으로 구성된 15개 문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Taylor와 Betz(1983)의 CDMSES(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의 요인별 5문항, 총 25문항, 창업효능감은 창업지식 및 실무경험에 대한 자기평가를 기반으로 벤처를 창업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Wilson et al.,(2007)이 창업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단일 항목으로 개발한 5 문항, 창업의도는 미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로서 Jennifer et al.,(2007)이 사용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변수		문항 수	출처
기업가정신	혁신성	15	Covin & Slevin(1986)
	위험감수성		
	진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25	Betz & Voyten(1997)
	진로정보		
	목표설정		
	문제해결		
창업효능감		5	Wilson et al.(2007)
창업의도		5	Jennifer et al(2007)
인구사회학적 특성		5	

IV. 실증분석

1.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수

강생, 창업동아리 학생 등을 대학생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방식으로 총 220명을 조사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55	70
	여성	65	30
학력	1학년	22	20
	2학년	69	31
	3학년	92	42
	4학년	37	17
전공	인문계열	53	24.1
	이공계열	77	35
	상경계열	78	35.5
	예체능계열	12	5.4

3.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Hair et al.(1995)에 따르면 사회과학에서는 대체로 요인들이 전체분산의 60%이상을 설명하는 경우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60% 미만인 경우에도 유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인 누적분산설명비율은 각 변수

를 측정하는 설문항목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충분히 보증하는 수준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를 <표 3>~<표 6>에서 보면 구체적인 요인추출은 아이젠 값(eigen value) 1 이상으로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모두 언급한 타당성 기준에 부합하여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모두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3> 기업가정신 타당성 검정 결과

구성변수(기업가정신)	요인1	요인2	요인3
혁신성1	0.615	0.152	0.275
혁신성2	0.645	0.186	0.320
혁신성4	0.832	0.134	0.040
혁신성3	0.619	0.265	-0.162
혁신성5	0.804	0.121	0.182
위험감수성6	0.161	0.620	0.272
위험감수성7	0.078	0.580	0.263
위험감수성10	-0.014	0.671	0.164
위험감수성9	0.182	0.740	0.074
위험감수성8	0.146	0.850	0.221
진취성13	-0.062	0.229	0.710
진취성11	0.120	0.167	0.810
진취성12	0.133	0.075	0.790
진취성13	0.216	0.077	0.733
진취성14	0.311	0.141	0.840
Eigen Value	7.025	3.551	1.467
분산설명비율(%)	32.350	18.238	12.745
누적분산설명비율(%)	32.305	50.588	63.333

<표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타당성 검정 결과

구성변수(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정보수집1	<u>0.750</u>	0.130	0.120	0.110	0.178
정보수집2	<u>0.812</u>	0.280	0.282	0.221	0.210
정보수집4	<u>0.710</u>	0.314	0.146	0.156	0.182
정보수집3	<u>0.740</u>	0.226	0.062	0.122	0.146
정보수집5	<u>0.812</u>	0.132	0.120	0.125	0.162
목표설정1	<u>0.181</u>	<u>0.770</u>	0.150	0.181	0.181
목표설정2	0.094	<u>0.721</u>	0.232	0.094	0.094
목표설정3	0.120	<u>0.823</u>	0.133	0.112	0.120
목표설정4	0.282	<u>0.841</u>	0.160	0.242	0.282
목표설정5	0.146	<u>0.792</u>	0.245	0.144	0.146
계획수립2	0.062	-0.020	<u>0.850</u>	0.214	0.062
계획수립3	0.120	0.140	<u>0.822</u>	0.120	0.125
계획수립1	0.133	-0.050	<u>0.811</u>	0.133	0.156
계획수립4	0.216	0.074	<u>0.768</u>	0.216	0.216
계획수립5	0.311	0.122	<u>0.866</u>	0.311	0.351
문제해결1	0.146	0.250	-0.008	<u>0.750</u>	0.128
문제해결2	0.062	0.322	-0.055	<u>0.812</u>	0.282
문제해결3	0.120	0.236	0.133	<u>0.710</u>	0.146
문제해결5	0.181	0.185	-0.065	<u>0.740</u>	0.132
문제해결4	0.094	0.162	-0.078	<u>0.812</u>	0.220
자기평가1	0.120	0.078	0.224	<u>0.127</u>	<u>0.750</u>
자기평가2	0.282	-0.014	0.180	0.231	<u>0.812</u>
자기평가3	0.146	0.182	0.167	0.240	<u>0.710</u>
자기평가4	0.062	0.146	0.185	0.223	<u>0.740</u>
자기평가5	0.120	-0.062	0.251	0.122	<u>0.812</u>
Eigen Value	5.740	4.789	2.657	1.836	1.490
분산설명비율(%)	28.650	25.364	17.315	9.630	6.190
누적분산설명비율(%)	28.650	54.014	71.455	81.085	87.275

<표 5>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 타당성 검정 결과

구성변수	요인1	요인2
창업효능감	<u>0.815</u>	0.140
창업효능감	<u>0.735</u>	-0.092
창업효능감	<u>0.820</u>	0.164
창업효능감	<u>0.776</u>	0.233
창업효능감	<u>0.811</u>	0.232
창업효능감	<u>0.761</u>	0.150
창업의도	0.121	<u>0.740</u>
창업의도	0.235	<u>0.785</u>
창업의도	0.129	<u>0.820</u>
창업의도	0.260	<u>0.814</u>
창업의도	0.147	<u>0.800</u>
Eigen Value	5.030	3.875
분산설명비율(%)	52.650	29.998
누적분산설명비율(%)	52.650	82.648

신뢰성 분석은 Cronbach' alpha에 의한 신뢰도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용할만한 신뢰계수의 기준으로 Van de Van과 Ferry (1986)는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를 <표 6>에서 보면, 변수들의 타당성 및 신뢰도 수준은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표 6> 신뢰도 검증 결과

변수		문항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기업가정신	혁신성	5	.730
	위험감수성	5	.712
	진취성	5	.8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보수집	5	.870
	목표설정	5	.833
	계획수립	5	.810
	문제해결	5	.835
	자기평가	5	.807
창업효능감		5	.842
창업의도		5	.750

4.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가 변수들에 정(+)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에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7>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기업가정신	혁신성	.560**	.487**
	위험감수성	.441**	.371**
	진취성	.410**	.35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421**	.460**
	진로정보	.350**	.462**
	목표설정	.511**	.422**
	미래계획	.451**	.390**
	문제해결	.466**	.374**

5. 가설검증

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50.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p < .001$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1>은 모두 채택되었다.

5.1 기업가정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관계

<가설 1>의 기업가정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진로

<표 8> 기업가정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분석 결과

독립변수	B	t	Sig
(상수)	1.332	4.930	.000
혁신성	.480	3.501	.000***
위험감수성	.245	2.236	.038*
진취성	.463	2.622	.000***

R²=.507 F=48.221 Sig=.000***

* P<.05 ** P<.01 ***P<.001

5.2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관계

<가설 2>의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에

52%의 설명력으로 p<.001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2>는 모두 채택되었다.

<표 9>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분석 결과

독립변수	B	t	Sig
(상수)	1.877	8.980	.000
혁신성	.420	7.652	.000***
위험감수성	.396	6.323	.000***
진취성	.424	7.688	.000***

R²=.520 F=34.653 Sig=.000***

* P<.05 ** P<.01 ***P<.001

5.3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관계

<가설 3>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대

해 43.3%의 설명력으로 p<.001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3>은 모두 채택되었다.

<표 10>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분석 결과

독립변수	B	t	Sig
(상수)	1.885	8.320	.000
혁신성	.413	7.681	.000***
위험감수성	.460	7.960	.000***
진취성	.422	7.643	.000***

R²=.433 F=51.146 Sig=.000***

* P<.05 ** P<.01 ***P<.001

5.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가설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와 <가설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11>과

<표 12>를 통해서 보면 β_1 , β_2 , β_4 의 값이 각각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β_3 값도 β_2 의 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매개효과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4>와 <가설 5>는 모두 채택되었다.

<표 11>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간 매개효과

가설	β_1	β_2	β_3	β_4
혁신	.480***	.420***	.113***	.431***
위험감수	.245*	.396***	.118**	.408***
진취성	.463***	.424***	.120**	.455***

* P<.05 ** P<.01 ***P<.001

<표 12>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 매개효과

가설	β_1	β_2	β_3	β_4
혁신	.480***	.413***	.245***	.424***
위험감수	.245*	.460***	.169**	.388**
진취성	.463***	.422***	.283**	.401***

* P<.05 ** P<.01 ***P<.001

V.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인식의 변화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서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양자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어떤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 기업가정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설 2> 기업가정신은 창업효

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 3>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설 4>와 <가설 5>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설이 모두 실증적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및 한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반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진로인식변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두 교육과정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 및 대학생의 진로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세부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교육이 필요한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육성, 교육콘텐츠 및 교구재 개발·보급, 창의·체험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다양한 체험처 발굴·보급 등 기업가정신 및 진로교육을 연계하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 등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또는 창업의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교육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시행이 필요하다. 단순히 기업가정신 교육만을 강화하기 보다는 진로변화 학습체계와 연계한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서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강화하고 창업에 대한 강한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창업의도를 강화하는 완결적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이 자연스럽게 진로교육과 연계되고 나아가 창업에 대한 열망으로 선순환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단순한 창업을 위한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의성, 혁신성, 도전정신 등 보다 광의적인 개념으로 창업에 국한된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정신 함양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혁신활동을 촉진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법을 제고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풀어나가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교육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강하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의 선행변수들을 기업가정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만을 가지고 분석한 점이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기업가정신과 경영 또는 창업관련 성과만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 새로운 변수들을 통한 확장 연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및 선행변수들을 다양화한 연구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변화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강재학(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논문.
2. 강재학·양동우(2016),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7(1), 493-507.
3. 권명규·양해술(2016) “융복합 산업 분야에서의 창업지원정책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4(5), 21-37.
4. 김선왕·조대우·성을현(2017),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간 대내·외 네트워크와 창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6(5), 121-149.
5. 김성욱·강창완·이운식(2016),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18(5), 2627-2636.
6. 김영환·양태용(2013), “기업가정신 유명 국제 학술지 논문 검토를 통한 기업가정신 연구 동향 분석”, *중소기업연구*, 35(3), 347-376.

7. 김진수(2016), “대학의 창업·창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진로교육학회*, 52-75.
8. 김수리(2016), “청소년의 진로교육, 진로 의사 결정 및 진로준비에 대한 질적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89-115.
9. 김성우(2017), “대학의 창취업교육이 창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10. 김정근(2017),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논문*.
11. 김태경(2019),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의도: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벤처창업연구*, 14(2), 95-104.
12. 노현철·김경재(2017),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 간의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의 매개효과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6(3), 51-70.
13. 박지우·양해술(2014),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2), 97-107.
14. 박재춘·김성환(2017), “예비창업자의 진로불확실성과 진로교육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1), 73-85.
15. 배성아·성소연(2019),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간 구조적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859-877.
16. 백민정·박민서·권경아(2017), “기업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27(3), 431-449.
17. 안태욱·박재환(2018),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벤처창업연구*, 13(2), 177-192.
18. 임윤서(2016),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역할 모델의 우연경험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4(2), 329-363.
19. 윤지수·현병환(2017),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지*, 687-711.
20. 정경희·성창수(2016), “대학 창업교육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경력준비행동 및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4), 49-57.
21. 정용희·하규수(2012), “예비창업자 개인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통정보학회*, 15(4), 41-53.
22. 조명실(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3. 주기중·박병화(2015), “기업가정신이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기술혁신의 매개역할”, *경영과 정보연구*, 34(2), 21-37.
24. 중소벤처기업부(2018),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
25. 중소기업청(2015), *벤처·창업 붐 확산*.
26. 홍혜영(2017), “기업가정신과 진로태도 성숙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27.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28. Baron, R. and Shane, S.(2005), *Entrepreneurship: A Process perspective*, 1st Edition, Mason, Ohio, South-Western Publishing.
29. Barringer, Bruce R. and Bluedorn, Allen C.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Factor affecting motivation market organizational facilitation and support And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 20, 421-444.
30. Betz, N. E., Klein, K. L. and Taylor, K. M.(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31.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32. Covin, J. G. and Slevin, D. P.(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25.
33.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34. Czop, K. and Leszczynska, A.(2011),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veness: in search of the inter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on and Learning*, 10(2), 156-175.
35. Gartner, William B. and Baker, Ted.(2010), "A Plausible History and Exploration of Stevenson's Definition of Entrepreneurship",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30(4), Article 2.
36. Hmieleski, K. M. and Corbett, A. C.(2006), "Proclivity for improvisation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4(1), 45-63.
37. Howorth, C., Smith, S. M. & Parkinson, C. (2012), "Social learning and soc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11(3), 371-389.
38. Jennifer, S. Stephen., L. Mueller, J. and McGee, E.(2007), "The Influence of Social Ties and Self-Efficacy in Form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Motivating Nascent Behavior",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12(3), 262-284.
39.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40. Sexton, D. L. and Bowman, N.(1985),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 129-140.
41. Stevenson, H.(1983), "A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No.9-384-131, Harvard Business School, Boston.
42. Tang, M., Fouad, N., & Smith, P. L.(1999), "Asian Americans' Career Choices: A Path Model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1), 142-157.
43. Taylor, K. M. and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44. Timmons, J. A.(1994), *New venture creation*, Burr Ridge, IL: Irwin.
45. Van de ven, A. H.(1986), "Central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innovation", *Management Science*, 32, 590-607.
46. Wilson, F., Kickul, J. and Marlino, D.(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

- 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47. Zaho, H., Seibert, S. E. and Hills, G. E.(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1272.
48. Zahra, S. A.(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4), 259-285.
49. Zahra, S. A. and Covin, J. G.(1996), "Contextual influences on the corporate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relationship: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1), 43-58.

Abstract

A Study on Effect of the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Youn, Ji-Su* · Hyun, Byung-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analyzing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bilateral relation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students, and, and 220 students were survey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verificati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WIN 21.0.

The specific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ntrepreneurship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efficacy, and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entrepreneurship efficacy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Third, the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showed that all mediated effects were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achieved through a convergence curriculum in which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career education can be considered at the entrepreneurial education stage in order to enhance entrepreneurship and intention to influence entrepreneurship and career choice. Prac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more effective education.

Key Words: Entrepreneurship,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Efficacy, Entrepreneurship Intention.

* First Author, Ph.D. Student, Dept. of Business Consulting, Daejeon University, yes012474@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Business Consulting, Daejeon University, hyunvv@gmail.com.